

## 2021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표어

우리는 생명의 길 안에서 행하면서  
영을 따라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며,  
죽음의 길 안에서 행하면서  
자아를 따라 옳고 그름의 지식나무로 말미암아 살아서는 안 된다.

교회의 유기적인 기능은 교회,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이끈  
사도를 본받아야 하며,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이끈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점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그들이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이끌려 신성한 옮겨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

2021년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내재적이고도 유기적인 건축**

메시지 1

**교회의 유기적인 존재를 위한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

성경: 요일 1:2, 요 1:12-13, 3:29-30, 12:24, 창 2:21-23, 고전 12:12, 28

**I.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은 신성한 생명인데, 이 신성한 생명이 교회를 산출한다 — 요일 1:2, 5:1.**

- A.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은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인 신성한 생명이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이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신다. 이 신성한 생명은 사실상 과정을 거치셨고 지금은 분배하고 계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 요 14:6, 10:10하, 고전 15:45하, 롬 8:2, 10, 6, 11, 고후 5:4.
1. 그 영께서 우리의 영을 거둬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태어난다. 신성한 영은 사람의 영을 낳으시고, 이 두 영은 하나로 연합된다 — 요 3:3, 5-6, 롬 8:16, 고전 6:17.
  2. 거둬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해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데, 이것은 아담의 배필인 하와로 예표된다 — 요 1:12-13, 3:29-30, 창 2:21-23.
    - a. 하와는 존재하기 전에 아담의 갈빗대, 곧 아담의 일부였다. 이 계시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일부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신체의 지체들이 우리의 일부이듯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일부이다 — 창 2:21-23, 엡 1:3-6, 고전 12:12, 롬 12:5, 비교 행 9:5.
    - b. 아담의 갈빗대가 생명을 하와 안으로 나누어 주어 하와를 아담의 배필로 만들어 주었듯이,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신성하고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은 우리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어 우리를 그분의 배필로 만들어 준다 — 창 2:22, 히 7:16, 고전 15:45하, 롬 8:2.
- B. 그리스도는 그분의 변성을 위해 한 알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으시어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심으로써,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이 되셨다 — 요 12:24, 눅 12:49-50.
- C.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인 많은 아들들을 얻으실 수 있도록,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이 되셨다 — 벧전 1:3, 롬 8:29, 히 2:11-12.
- D.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은 우주 가운데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진 그분의 많은 가지들로서, 그리스도를 뺀어 나가게 하여 그분을 확대하도록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결과 그들은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로서 그분을 표현한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진액이신 생명 주시는 영의 충분한 공급을 받아들일 때, 내적인 생명 공급의 넘쳐흐름인 열매를 맺게 된다 — 요 15:1, 4-5, 16, 8, 롬 11:17, 24.
- E. 삼일 하나님의 이 유기체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많은 지체들인 그분의 많은 형제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다 — 엡 1:22-23, 롬 12:5.

**II. 우리는 교회의 유기적인 존재를 보고 체험해야 한다 — 엡 1:17.**

- A.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인 하나님의 우주적인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한 우주적인 교회로서 우주 안에 존재한다 — 고전 10:32, 12:28, 엡 3:19하.

- B. 교회는 이 땅의 많은 지방들에서 그분의 지방적인 표현들인 많은 지방 교회들로 뻗어 나가고 있다 — 계 1:4, 11.
1.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바울은 (우주적인) 사도들, (우주적일 뿐 아니라 지방적이기도 한) 신언자들과 교사들, (지방적인) 집사들과 장로들을 모두 함께 둔다. 이것은 이 절에서 ‘교회’라는 말이 우주적인 교회와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함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주적인 교회와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만 ‘교회’이다. 과정을 거치셨고 지금은 분배하고 계시는 삼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교회의 본질 자체이다. 그러므로 우주적인 방면과 지방적인 방면 모두에서 이 교회는 한 교회이다.
- C. 우리가 교회의 유기적인 존재를 위한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로 돌아올 때,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가르침에 수긍하여 말하는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교회들은 과정을 거치셨고 분배하고 계시는 삼일 하나님의 하나의 유일한 유기체이다.
- D. 성경에 따르면, 실지적인 일곱 방면의 하나(oneness)는 우리가 (1) 가르침에서 하나이고(고전 4:17, 7:17, 16:1, 행 2:42, 롬 16:17, 딤후 1:3-4, 6:3, 엡 4:13-14), (2) 실행에서 하나이고(고전 11:16, 14:33하-34), (3)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이고(빌 2:2, 5-8, 4:2, 고전 1:10), (4) 말에서 하나이고(롬 15:6, 고전 1:10), (5, 6, 7) 본질과 외양과 표현에서 하나인 것이다(계 1:11-12).

### III. 교회의 유기적인 존재를 위한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의 실재 안에서 생명의 길에 머물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며(딤후 4:7)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고후 3:16-18).

- A. 우리는 생명의 길 안에서 행하면서 영을 따라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며, 죽음의 길 안에서 행하면서 자아를 따라 옳고 그름의 지식나무로 말미암아 살아서는 안 된다 — 창 2:9, 롬 8:4, 6, 고후 2:13, 마 16:24.
- B. 우리는 주님을 극도로 사랑함으로써 생명의 길에 머문다. 주님을 믿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 막 12:30, 아 1:4상.
- C. 우리와 주님 사이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다.
1.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그분을 향한 합당한 ‘사랑’을 가짐으로 그분을 누리는 순수한 처녀들로 드리려고 약혼시켰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에 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 준다.
  2. 사람의 생각에 있는 문제들의 다음과 같은 증상들은 모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방해가 된다.
    - a. 사람의 생각에 있는 문제들의 첫 번째 증상은 굳어진 생각을 갖는 것이다 — 고후 3:14.
    - b. 사람의 생각에 있는 문제들의 두 번째 증상은 사탄에 의해 눈멀게 되는 것이다 — 고후 4:4.
    - c. 사람의 생각에 있는 문제들의 세 번째 증상은 반역이다 — 고후 10:4-5.
    - d. 사람의 생각에 있는 문제들의 네 번째 증상은 부패이다 — 고후 11:3.
  3. 우리는 “오, 주님, 저의 생각을 살펴 주시고 저의 생각을 구출해 주셔서, 오직 당신께 전일하고도 전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 롬 8:6, 시 139:23-24.
  4.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림으로써 그분을 향해 불타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 — 계 2:4-5, 7, 골 1:18하, 롬 12:11, 딤후 1:6-7.
- D.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자비를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히 4:16, 눅 1:78-79) 우리 모두가 생명이 성장하여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을 이루도록, 생명의 흐름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생명의 길과 생명의 노선에 머물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유기적인 존재를 위한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 안에 머무는 것이다(창 2:9, 계 22:1-2, 롬 8:6, 엡 4:15-16, 골 2:19, 요 6:57, 63, 7:38-39, 20:22).